불 교 총 지 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6년
2017년 3월 2일
음력 2월 5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1년 제208호

총기 46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 입재

전국 서원당에서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 상반기 49일 불공 입재

총본산 총지사(주교 원당 정사)와 전국 사원은 총기 46년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를 스승과 교도 모두가 2월 19일 입재 했다.

총지사 주교 원당정사는 설법을 통해 "상반기 49일 불공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업장 소멸을 위한 불사로 총지종의 모든 스승과 교도가 49일 동안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행 기간을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한 기도와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는지 참회하고 자식의 앞날에 비로자나 부처님 가지력이 충만 하기를 서원합시다."며 입재에 드는 교도들을 격려 했다. 49일간의 정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와 자성(自省)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

<진호국가불사>진언 "움훔야호사"는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밀교경전인 "수호국 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의궤의 정립은 총기 8년(1979년) 4월 26일 춘계강공회에서 제정되었다. 불사는 나라발전,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이 호국 불사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행한다. 또한 총기 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 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한 자손 불공이 포함되었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4월 8일(양력)에 회향된다. 회향일의 의미는 부처님오신 날이 음력 4월 8일이지만, 종단은 이를 양력으로 시행한다.

총지사=김초랑 기자

종립 부산 동해중학교 제47회 졸업식 봉행

21세기 전 세계의 주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동해중 졸업식

종립 동해중학교 제47회 졸업식이 총기 46년 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 해오름관에서 봉행되었다.

졸업식에는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이사장 인선 정사, 중앙종회 의장 수현 정사, 총무부장 우인 정사, 학부모 내빈 약 500여 명이 참석하여, 3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탁상달 교장은 회고사를 통해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변화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시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와 파도처럼 밀려오는 새로운 지식들을 대할 때 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낙후되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동해인들 만이 갖는 변하지 않는 앞날의 지도자 정신이자 미래에 대한 도전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졸업생들은 깊은 생각과 적극적 실천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만의 동해 지도자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라며 우수한 성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동해 지도자 정신'을 강조했다.

이어 이사장 인선 정사는 축사를 통해 "평소 우리 동해중학교에서 갈고 닦은 소중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서도 결코 잊지 말고 가슴에 담아서 동해인의 긍지를 가지고 생활해 주길 바랍니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모교인 동해중학교의 이름을 빛내주길 바랍니다"라고 21세기의 주역이 될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영예의 이사장 상은 수석 졸업생 서진혁 군이 수상하였고, 3학년3반 한동원 외 5명이 불교총지종 장학금을 받았고, 총 40명의 졸업생에게 동창회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등 이 수여되었다. 동해중학교는 1968년 3월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제47회 졸업생 161명을 더해 총 졸업생 17,847명이 졸업한 전국 최고의 명문 종립학교이다.

부산 동해중=김종열 기자

총기 46년 불교총지종 종단 정기감사

2월 15~16일 양일간 통리원에서

▲ 총기 46년 총지종 종단 감사

불교총지종 사감원(원장 안성 정사)은 총기 46년 종단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에는 안성 사감원장, 승원, 도현, 덕광, 감사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기감사는 총기 46년 통리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법장원, 밀교연구소가 진행한 업무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위원들은 예산 집행 등 회계처리, 물자 구매계약의 적정성, 인사관리, 종무원 복지실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하였다.

사감원장 안성 정사는 총평에서 "이번 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통리원 집행부와 종무원들게 감사드립니다. 종단 전체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감원은 행정의 흐름과 적정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종단 인사이동의 시기를 추계강공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과 종단 연구기관인 법장원과 밀교 연구소의 연간 연구과제 및 결과를 종령님께 보고하고, 만다라 요양원을 운영중인 전주 흥국사의 요양원과 요사를 분리 운영 하는 현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며 총기 46년 총지종 정기감사의 결과를 평했다. 감사결과는 다음 중앙종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통리원=김종열 기자

지면안내

1면 총기 46년 상반기 49일 불공
2면 불교계 주요소식
3면 총지종 종단 소식
4면 지상설법
5면 총지종 좌종
6면 동해권 중심사원, 포항 수인사
7면 수인사 신행체험
8면 밀교연재
9면 종단 주요소식
10면 비주얼 총전
11면 문화산책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조계종,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발간

1999년에서 2015년까지 16년간의 불교문화재 도난내용 153건 추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도난을 통해 불교문화재가 시장에 유통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서 조속히 원 사찰로 환지본처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을 PDF로 발간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지건길)의 지원을 받아 PDF 형태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 국문본과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번 증보판은 도난문화재 환수를 위해 1999년 이후 종단에 축적된 자료와 문화재청의 도난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1984년에서 2015년까지의 도난 내용을 담았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 PDF를 게재하여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문화>성보문화재의 이해>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은 국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도난 불교문화재의 환수기반과 경매시장유통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발간했다. 영문본의 해외 배포는 국외에 소재한 한국문화재 환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협의하여 문화재청에서 해외에 배포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1984~2015)』은 기존 1999년에 발간한 『불교문화재 도난백서(1984~1999)』 내용에 신규로 153건을 증보했다. 내용은 사진이 게재된 PART Ⅰ 302건과 사진이 미게재된 PART Ⅱ 138건으로 구성하여 총 440건으로 게재했다. 증보판의 목차순서는 불교문화재의 도난율에 따라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석조물, 불교공예, 경전·경판의 순으로 게재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불교문화재 도난과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나갈 것이며, 사진이 미게재 된 도난 성보의 사진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도난 불교문화재 환수를 위해 「불교문화재 도난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2014.10.22.)을 체결한 경찰청과 문화재청과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태고종 종단 부채 해결을 위해 승려의무금 인상

1월 23일 제127회 태고종 임시중앙종회서

▲ 제127회 태고종 임시중앙종회

태고종은 산적한 부채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승려의무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앙종회에 보고했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설운스님)는 1월 23일 한국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27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분담금(승려의무금) 일괄 균등 인상 시행 보고(안)와 총무원 부원장 및 교육부원장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해임 동의, 원로의원 선출 등 총 11건의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태고종 종회에서 재경부장 진성스님은 "현재 종단이 직면한 시급한 부채문제를 단기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4년동안 한시적으로 승려의무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채문제 해결 후 인하하겠다"면서 "분한인원 3558명이 의무금을 모두 납부하면 매년 6억4천만원 정도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렇게 인상된 승려의무금으로 현재 약 60억원에 달하는 종단부채 중 이자 일부를 탕감받아, 혜공스님 보관자금 상환분을 뺀 나머지 28억원을 매년 7억원씩 상환하면 2020년도엔 모든 부채가 상환될 것"이라고 했다.

승려의무금 인상과 관련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은 '종무방침연설'을 통해 "차기 총무원 집행부가 종단 안정을 확립하고 종단 사업을 통한 위상제고 및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종단 공찰이 강제로 경매 처분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제경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종단이 당면한 부채 해결과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승려의무금 인상안 이외 다른 대안이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총지사=김초랑 기자

진각종 회당학원 위덕대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

학사 551명, 석사 67명, 박사 13명 배출

▲ 위덕대 학위수여식

진각종 회당학원 위덕대학교(총장 홍욱헌)는 2월 16일 오후 2시 교내 정진관(대학체육관)에서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학사 551명, 석사 67명, 박사 13명 등 총 63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에서 학부 전체수석 이해인(항공관광학부) 씨가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설립종단인 진각종 총인상은 참팍바루아 스님(불교문화학과), 통리원장상은 손기은(중등특수교육전공), 김태운(불교문화학과) 씨가 각각 수상했다. 총장상에는 계열수석 김미희(물리치료학과) 씨, 학과(부) 수석 샤카어민(불교문화학과) 씨 등 20명이 받았다. 공로자에 대한 총장표창은 김은비(사회복지학과) 씨 등 10명, 외부기관 표창은 오창한(반도체전자공학전공·경북도지사상) 등 10명이 선정됐으며, 대학원 공로·표창패(장)는 남원식(경영학과 박사) 등 29명이 수상했다.

이날 홍욱헌 총장은 졸업식 식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인성 함양과 창의적 사고를 연마하여 공감의 인재로 성장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일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위덕대가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재충전할 수 있는 둘도 없는 동반자임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으면서 축적해온 학문과 수행하고 정진하며 가꾸고 다듬어온 인격은 앞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하는 데 있어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로 진출해 드넓은 세계관과 원대한 인생관, 더불어 살려는 생활관으로 무장한 참된 인재이자 누구나 부러워할 위덕인으로서 감동을 전하는 이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종단협 제53차 정기총회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도 열려

▲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정기총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및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 스님 · 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2월 23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53차 정기총회 및 2017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은 "불자 인구가 많이 감소한 지금 각 종단 스님들이 적극적인 포교를 해야 한다. 타 종교처럼 광적이진 않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1년에 1명씩이라도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종단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불교계는 1975년 공휴일지정 이전부터 '부처님오신날'을 사용해 왔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로 명기돼 있다. 이에 정부 및 국회관련 상임위 등에 공식 명칭을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종단협 사무처는 광화문 점등식은 4월 12일 오후 7시 광화문 북측 광장, 전통등전시회(조계사, 청계천)는 4월 28일~5월 7일, 어울림마당은 4월 29일 오후 4시 동국대운동장, 연등행렬(동대문~종각)은 오후 7시부터, 회향한마당(종각)은 4월 29일 오후 9시 30분,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은 4월 30일 낮 12시, 연등놀이(인사동, 조계사 앞길)는 4월 30일 오후 7시에 열린다고 보고했다. 또한 제20차 한중일예비회의를 3월 22~2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로(세종대로사거리~흥인지문 2.8km)와 남대문로(종로 1가~숭례문 1.35km)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연등행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중지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개최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에서는 2016년도 결산과 회계보고가 있었다. 금년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대회의 계획도 보고됐다.

부처님 자비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관성사	김대기	1/23	10,000
	인 선	1/23	20,000
	인 선	2/20	20,000
	황성녀	1/31	10,000
기로스승	해 정	2/1	10,000
	대 관	1/23	10,000
	대 관	2/20	10,000
	상지화	1/23	10,000
	상지화	2/20	10,000
	수증원	2/20	10,000
	수증원	1/23	10,000
	밀공정	1/23	10,000
	밀공정	2/20	10,000
	총지화	1/23	10,000
	총지화	2/20	10,000
	선도원	2/20	10,000
	선도원	1/23	10,000
	법수원	1/23	10,000
	법수원	2/20	10,000
	법지원	2/20	10,000
	법지원	1/23	10,000
	일성혜	1/23	10,000
	일성혜	2/20	10,000
	불멸심	1/23	10,000
	불멸심	2/20	10,000
	사홍화	1/23	10,000
	사홍화	2/20	10,000
	안주화	2/20	10,000
	안주화	1/23	10,000
	원 봉	2/17	10,000
	지선행	2/17	10,000
개천사	황귀석	2/10	10,000
	전세형	2/6	30,000
단향사	록 경	2/2	10,000
동해사	탁상달	2/10	20,000
밀인사	정정희	2/3	5,000
	이기상	2/14	10,000
	안옥진	2/14	10,000
	이성수	2/14	10,000
	박주연	2/14	10,000
	이수연	2/14	10,000
만보사	정덕순	1/25	10,000
벽룡사	양정현	2/15	10,000
	양지현	2/15	10,000
	권형민	2/15	10,000
백월사	김강미자	1/26	10,000
법황사	박미경	2/20	10,000
실보사	이순옥	1/25	10,000
실지사	법 우	2/14	10,000
	인지심	2/14	10,000
	유승태	2/14	10,000
	정경자	2/16	20,000
	조성우	2/2	10,000
수인사	무명씨	1/31	10,000
선립사	황귀석	2/10	10,000
일원어린이집			
	구미자	1/31	10,000
	김지영	1/25	10,000
	김용미	1/25	10,000
	이준동	1/25	10,000
	구나영	2/20	10,000
	하재희	1/25	50,000
운천사	무명씨	1/24	50,000
	무명씨	2/6	20,000
	무명씨	1/24	1,000,000
지인사	승효제	2/17	10,000
제석사	법계월	1/24	200,000
	이지은	1/24	10,000
	이재은	1/24	10,000
	이은별	1/24	10,000
정각사	변순개	1/31	6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25	30,000
총지사	신용도	2/14	10,000
	박정희	2/14	10,000
	백지순	2/5	20,000
	손경옥	2/15	10,000
통리원	김평석	2/20	10,000
흥국사	지 정	2/17	20,000
화음사	무명씨	2/1	10,000
	무명씨	2/16	10,000
	무명씨	2/16	20,000
혜정사	최영례	2/2	70,000

사원명무기명

김갑선	2/20	10,000
	2/20	10,000

1월21일 ~ 2월20일까지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총지종 좌종 의장등록 출원

사종관을 담은 정통밀교 법구 조성

총지종이 조성한 법구 좌종이 2월 23일 특허청 의장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통리원 교정부는 종단의 공식 법구로 좌종을 전통유기 제작 방식으로 조성하고, 각 사원에 보급하여 불사에 적용하고 있다.

지름 약 15cm, 깊이 약 8cm, 두께 약 5cm로 가운데는 육합상. 사방으로'아, 바, 라, 하' 4종의 종자를 양각으로 조각하고 주물(鑄物) 청동 유기로 제작했고, 특허청으로부터 육합상에 이어 의장등록을 받았다.

좌종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람' 자를 관할 때 사방에 새겨진 식재, 증익, 경애, 항복의 4종 종자에 중생들의 염원인 세간적 소망을 담아 불국토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한다. 또한 좌종 소리는 무상으로 출세간적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좌종은 불교이념을 구현하고, 시대에 부합하고, 사찰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디자인이다.

통리원=김종열기자

디자인등록증
CERTIFICATE OF DESIGN REGISTRATION
등록 제 30-0895115 호
2017년 02월 15일
특허청장
COMMISSIONER,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통리원 종무원 사택

만트라빌 준공, 종무원 입주시작

▲ 신축 종무원 사택 (만트라빌)

통리원 종무원 사택으로 사용되는 역삼동 만트라빌(구. 호성타운)이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5월 18일 신축 지진불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신축공사는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지상 3층으로 주차장과 원룸 3실, 투룸 3실을 완공했다.

기존 호성타운은 건축한지 30여년이 지나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 붕괴의 위험이 높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종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됐다. 신축 종무원 사택이 완공됨으로 종무원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고, 사기진작을 통해 종무 행정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신규 종무원 채용 면접 실시

2월 16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총기 46년 총지종 종무원 면접이 2월 16일 통리원 부장실에서 있었다.

지난 12월 채용공고를 내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접수한 서류를 전형하여 합격한 인재들이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통리원 집행부는 지원자의 인성, 직무능력, 경력, 불자로서의 자세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고 지원자를 평가 했다.

총무부장 우인 정사는 "종무원 선발은 능력 뿐 만이 아니라 지원자의 인성과 불자로서의 자세를 최우선으로 선발했습니다. 종단의 행정을 담당하는 종무원은 스승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기에 최선을 다해 평가 했습니다"며 면접 기준을 설명했다. 통리원은 최종 합격한 인원은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서울 · 경인 마니합창단 공식 CD 제작 예정

의식곡 및 행사곡 전문 스튜디오에서 녹음

불교총지종 통리원 교정부는 종단 불사 및 행사에 사용될 공식 의식곡을 녹음 제작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사용중인 공식 의식곡의 제작 및 보존 상태가 오래되어 제대로 된 음질을 구현 할 수 없어, 서울·경인 마니 합창단(지휘 김양희, 단장 최영아)이 출연하여 전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할 예정이다.

참회, 오대서원, 회향서원, 청법가, 창교가, 총지종의 노래 등이 녹음 될 예정이다.

만들어진 CD는 전국 사원으로 배포되어 종단 불사와 행사에 음원으로 활용 된다.

제133회 불교총지종 중앙종의회 개최

불교방송 추가 출자금 및 주요 안건 심의 결의

▲ 제 133회 총지종 중앙종의회

총기 46년 제133회 중앙종의회(의장 수현 정사)가 2월 16일 총지종 통리원 2층 반야실에서 개최했다.

종회의장 수현 정사의 집공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종회의원과 인선 통리원장, 우인 총무부장 그리고 통리원 담당 종무원들이 참석했다.

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는 "종의회의원 여러분들은 이번 종의회에 상정 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각자의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토의된 안건의 결과가 종무 행정에 잘 반영되도록 통리원 집행부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며 개회사를 했다.

이번 종의회에서는 불교방송 추가 출자의 건을 의결하고, 사감원법 개정안, 중앙종의회 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통리원=김종열기자

종립 동해중학교 교원 정년 및 명예 퇴임식

우수 교원 시상도 함께 열려

▲ 교원 정년 및 명예퇴임식

총기 46년 종립동해중학교 교원 정년 및 명예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10시 교무실에서 열렸다. 이사장 인선 정사, 통리원 총무부장 우인 정사, 동해중 탁상달 교장 및 교직원 전원이 참석한 퇴임식에서 체육 임종옥 교사, 음악 김광무 교사, 남영옥 영어 교사가 이사장 인선 정사로부터 사령장과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사장 인선 정사는 "지난 30여년을 교직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세 분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세 시대인 지금 인생의 전반부를 교직에 두셨으면 후반부는 새로운 인생과 함께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부처님 전 서원합니다"며 퇴임하는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번에 퇴직하는 체육 임종옥 교사, 음악 김광무 교사, 남영옥 영어 교사는 지난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동해중학교에 입사하여 청춘을 교단에서 보낸 자랑스러운 교사이자, 진정한 사도를 실천한 장본인이다.

이어 지난 한해 고생한 우수교원 표창이 있었다. 이사장 인선 정사는 김재근 교감, 김진화 교무부장, 한문술 교사 에게 표창과 포상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부산 동해중=김종열 기자

설법자료집 『불공과 설법』 제4집 발간

지난 2월초 『밀교연구소』에서 펴냄, 총 14가지 주제

총지종 밀교연구소(소장 법경 정사, 법천사 주교)는 지난 2월초 종단의 설법자료집인 『불공과 설법』 제4집(사진)을 발간했다.

본 자료집의 내용은 '수행과 기도', '네 가지의 힘', '보살이란', '진정한 보시란', '삼세인연의 결과', '전생 이야기', '지옥', '해탈', '행복해지는 법', '선지식', '마음의 안정', '만족, 그리고 여유', ' 무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정진' 등 총 14가지 주제로 엮어졌다.

자료집은 설법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한 구어체'의 형식으로 꾸며졌다.

법천사 신정회장 이취임식 봉행

신임 신정회장에 천수심(김정숙) 보살 취임

▲ 법천사 신정회장 이 · 취임식

법천사(주교 법경 정사)는 지난 2월 12일 법천사 서원당에서 신정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신임 신정회장에 천수심 전임 부회장 보살이 선임되었다.

천수심 신임 회장은 그 동안 신정회의 부회장직을 오랫동안 맡아 왔는데, 보리수 전임 회장이 개인사정으로 회장직에 물러나면서 전임 부회장이었던 천수심 보살이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

신임 신정회장은 3년 동안 신도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법음과 함께 자비를 전하는

불교총지종 서울·경인 마니합창단

지휘자 김양희

반주자 홍경임

단장 최영아

총무 김옥인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단원모집 상담전화 02-552-1080

지상 설법

무소유와 부처의 모습

모든 부처의 몸은 하나의 법신, 즉 하나의 진리인 것

수인사 유가해 전수

> “나라는 생각, 나의 것 이라는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착, 소유욕을 비울 때, 우리들 존재의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무엇이든 채울 수 있습니다.”

무소유

교도여러분!

오늘은 무소유와 불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열반하신 조계종 법정스님의 수필 제목으로도 유명한 무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이 단단하고 굳을수록 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커져 갑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내 것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공포도 커져갑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과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와 ‘내 것’으로부터 벗어난, 이른바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들은 매사에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집착은 구속입니다. 애착은 쇠사슬입니다. ‘나’와 ‘내 것’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소유의 이름으로 존재를 감옥에 가두어 놓는 꼴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순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 모습, 내 권위, 내 재산을 사들이려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유를 저작거리에 내다 팔지 않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나 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리석음은 물질과 육신은 반드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망각하는데서 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법무아(諸法無我)라 설하셨습니다. 이는 일체의 만물과 생각은 고정되게 내세울 존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라고 일컬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 라는 데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라도 걸림 없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살을 꼬집으면 아파하는 이 몸의 존재는 분명이 있는 것 아닌가? 오감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는 이 존재는 분명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가? 라고 반문 할지 모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떠나면 슬프고, 괴로움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생의 생각일 뿐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의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허상이요, 꿈이요, 물거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물질계 전체가 사실은 거푸집처럼 임시 거처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실로서 속속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나 라는 생각, 나의 것 이라는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착, 소유욕을 비울 때, 우리들 존재의 그릇에는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처의 모습

다음으로 우리가 매일 서원당에서 불공을 드리는 부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원당에는 현교와 달리 옴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을 본존으로 하고 태장, 금강 양계만다라를 좌우에 모시고 있습니다. 본존 우측에 있는 만다라관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중앙의 원을 중심으로 동방에 아축불, 남방에 보생불, 서방에 아미타불, 북방에 불공성취불이 계시고 중앙에는 비로자나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보살과 명왕, 천왕이 나란히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지종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으로 계시지 않고,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이 사람도 부처, 저 사람도 부처, 수많은사람들이 부처인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은 서로 달라도 깨달음의 마음은 하나요, 궁극에는 그 하나조차도 없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는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 영원불변의 진리인 법신이신 것입니다.

부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이름만 다르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의 몸은 하나의 법신, 즉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부처는 형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교는 진리 자체인 법신비로자나불을 주불로 한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크고도 넓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라 합니다. 대자대비는 중생과 근본으로부터 한 몸이 되신 것이기에 동체대비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으로 하여금 바르고 고통 없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부처님은 영원한 생명이며 한량없는 빛이며 모든 것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그 자체이신 부처님의 광명은 영원이 끝나지 않는 등불 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불공에 정진하는 것은 지금 생에 윤회의 사슬과 업보의 벽을 허물고,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나의 용맹정진은 법계의 진리이신 부처님께 전해져 당당히 이생에 성불을 이룰 것입니다.

칼럼 혜안

만들기만 하면 무엇하나

벽룡사 주교 법 일

“이 기술로 단 한명의 목숨도 살릴 수가 없으니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는 대통령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용화하지도 못할 바엔 거둬가 주십시오.”

JSKGlassBreaker 김정식 대표의 이야기다. ‘40년 경력의 유리 시공업자였던 그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세월호를 보면서 “유리창이 탈출구가 됐다면 다만 몇 명이라도 더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탄식을 했다.

이후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직접 차를 타고 물속에 들어가 수십 번 검증과 실험을 하는 도중 유리 파편으로 살이 찢기기도 했다. 셀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육지와 수중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고정형 유리파괴기’를 완성 특허등록까지 하였다.

2015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김대표는 고생해서 만든 기술을 ‘0원’에 내 놓았다. 미국이나 독일의 유명 회사에서 기술을 사고 싶다고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나 기업들에게 수차례 제안했으나 기술을 상용화 하겠다는 국내 정부 부처나 기업들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창원에서 버스가 물에 빠져 승객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통령 표창을 반납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는 1월24일자 SBS의 subusunews 기사를 접하고 보니 참으로 울화통이 터진다.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통계조사표를 보면 2015년 기술도입액164억. 기술수출액104억. 기술무역수지 60억 적자, 2011년은 기술도입액 99억, 기술수출액 40억, 기술무역수지 59억 적자 이다.

5년 동안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무역수지는 비슷한 적자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무리 신기술이 나와도 적극적인 기술수용과 상품화, 기술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2013년 3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의 관련 기능과 조직을 합쳐 중앙행정기관으로 우리 사회에 창조경제 기반과 창조경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 개편하였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우리가 보유한 세계수준의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새로운 경제가치를 만들어 내보자는 창조경제는 정치적 구호였단 말인가?

김정식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고공화국으로 낙인찍힌 대한민국이 오명을 씻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정부나 국내 기업들의 무관심이 안타까울 뿐입니다.”라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기술도, 국민의 이익도 못 지키고 있지 않은가. 기술이든, 기관이든 만들기만 하면 무엇하나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실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구 총지종 '좌종'

교정부장 법 일

최근 총지종은 종단의 공식 법구로 좌종(坐鐘)을 전통유기 제작 방식으로 조성하고 각 사원에 보급하여 불사에 적용하고 있다.

좌종은 지름 약 15cm, 깊이 약 8cm, 두께 약 5cm로 가운데는 육합상, 사방으로 '아, 바, 라, 하' 4종의 종자를 양각으로 조각하고 주물 청동 유기로 제작했고 특허청으로부터 의장등록을 받았다.

좌종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람' 자를 관할 때 사방에 새겨진 식재, 증익, 경애, 항복의 4종 종자에 중생들의 염원인 세간적 소망을 담아 불국토에 울려 퍼지기를 기원한다. 또한 좌종 소리는 무상으로 출세간적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좌종은 불교의 이념을 구현하고, 종단 의궤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디자인이다. 기존의 좌종 디자인과 종단의 사종수법을 결합한 새로운 법구의 이름을 종발(鍾鉢)이라 명칭하는 것을 제안한다. 종발은 소리나는 금속 발우형 법구란 뜻으로 기능적·형태적 분류의 종합적인 이름이다.

종의 역사

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청동기 시대 때부터 종(鐘)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 중, 일을 통해 가장 오래된 종은 중국 남조 진나라 태건 7년 명종(575년)으로 알려져 있다. 악기로서 춘추전국시대 이전으로 추정되는 증후을묘(기원전 6세기)에서 출토된 편종(編鐘)이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은대 말기부터 동종(銅鐘)이 제작되었으나 이것은 제사에 쓰이는 중요한 악기로, 종두(鐘頭)에 용(甬)이라는 꼭지가 붙었고 후에 이것이 고리[旋]로 바뀌었다. 그리고 악종은 그 후 다시 시각을 알리는 실용적인 시종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불교의 융성과 더불어 실용적인 기능에서 중생제도의 종교적 기능도 지니게 되고 뛰어난 공예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종이 있었는데 사용목적은 음을 이용한 오락,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예기(禮器)에 속하는 악기의 일종인 박(鎛), 징(鉦), 종(鐘) 중에서 용종(甬鐘)을 모방했다는 설이나 탁(鐸)을 혼합해서 형태가 발전된 것이라는 설도 있으며, 불교와 더불어 인도에서 건추(종의 범어)가 들어와 되었다는 설들이 있다. 그러나 불교의 본향인 인도에는 동아시아와 같은 범종문화는 없다. 대체로 인도의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 당시 발달한 중국의 고동기(古銅器)문화와 만나면서 불교의 종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발달한 불교의 종 문화는 동(東)으로 한반도와 일본으로 남(南)으로는 태국, 월남, 미얀마 등지로 그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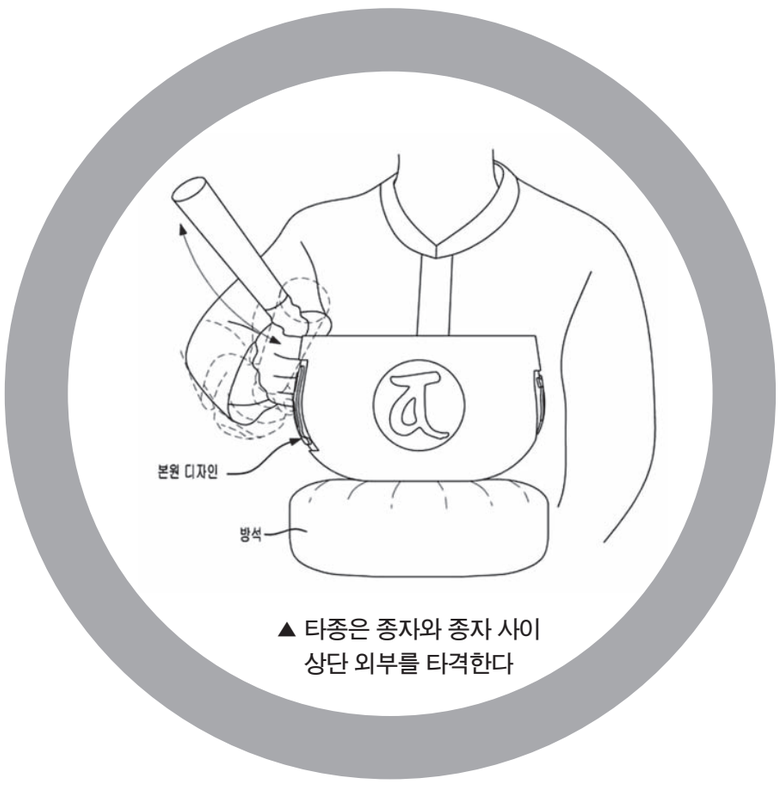
한국의 종

한국의 종은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사지 풍탁, 감은사지, 황룡사지의 풍탁을 제외하면 현존 가장 오래된 범종은 상원사 동종(725년)이며 고구려 벽화에서의 흔적(4세기 중혜의 안악3호분) 이나,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서 그 이외의 종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는 있으나 유물은 발굴되지 않고 있다. 그 외 이성계가 먼저 세상을 떠난 신덕왕후를 그리워하며 흥천사에 세운 동종(1462년), 조선시대 한양의 표준시간을 알렸던 보신각종(1469년) 등이 유명하다.(한국 범종 연구·종두 디자인의 새로운 모색. 도 학회. 2011)

법흥왕대에 불교를 공인한 이후 "법당을 세우고 범종을 걸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종이 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종의 기원이 될 만한 기본형을 갖추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건너온 편경모양들이 여러 실험을 거쳐 상원사종에 이르러 항아리 형태의 신라종의 원형이 정리되었다고 본다.(「신라종 양식의 용종기원설 비판 3」. 신라사학보. 7집. 2006)

이후 19세기에 와서 종 제작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가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의 기법으로 제작된 종은 찾기 어렵고 일본기법(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으로 만들어진 종들만이 발견되고 있다.



▲ 타종은 종자와 종자 사이 상단 외부를 타격한다

종의 종류

종은 용도상으로 악종, 시종, 경종, 범종 등으로 나뉘고, 형태상으로는 중국의 종탁형, 서양의 벨형, 사찰의 범종형 등이 있다. 또 항아리형, 판상의 경쇠형, 징 모양의 동라형, 동라보다 종구가 좁은 금고형 등 다종다양하다. 타종하는 방법은 서양의 종은 종신(鐘身) 내부에 추를 매달아 종 전체를 흔들어 소리를 내게 하는 내타식(內打式)이며, 동양의 종은 종신 표면에 당좌(撞座)가 만들어져 당목(撞木)으로 쳐서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

좌종의 활용

티벳에서 사용되는 노래하는 그릇 싱잉볼의 기원은 2,400년 전 부처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인도, 네팔, 티베트에서 구전을 통해 대대로 내려오게 됐다. 이 싱잉볼은 우리 몸의 일곱 차크라(와 상응하는 7가지 금속을 녹여 만들어지는데 3-4명의 사람들이 번갈아 두드리며 만트라를 외우며 수작업으로 제작한다.

싱잉볼은 제작부터 치유의도를 갖고 만들어지며 잘 조율된 특정음의 싱잉볼은 우리 몸의 각각의 차크라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티베트는 싱잉볼(노래하는 주발, 티베트종), 일본은 링공(rin gong) 이라 부른다. 소리와 진동을 이용한 힐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집중력을 향상 시켜주며, 혈압을 낮춰주고, 몸의 생명에너지를 촉진시켜주며, 면역력 향상, 차크라 에너지장의 조화, 혈압을 낮추고, 몸의 생명에너지를 촉진시키주며, 높은 차원의 영감과 인식, 좌우뇌 동조, 부정적인 정신과 감정 제거, 창조력을 높여준다.

▲ 싱잉볼 치유

한국의 한 대학에서는 좌종의 소리가 뇌파에 미치는 실험(5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좌종, 채, 방석을 설치하고 타종소리 3분을 듣는 동안 뇌파를 측정한다.30초에 1번씩 총6회 타종)을 통해 좌종 소리는 뇌파의 알파파 증가와 감마파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알파파 증가는 신체적 이완, 스트레스 완화, 과제수행동안 목표자극에 유리하며 주의집중력, 기억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되어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감마파 감소는 뇌의 각성, 긴장 및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켜 주의집중력 및 학습 능력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좌종소리는 극도의 가성과 흥분시 발생하는 뇌파를 줄여주어 뇌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학습이나 인지적 활동에 가장 적절한 뇌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각성과 흥분을 낮춰주거나 인지활동 증진에 좋은 중재도구가 될 것이다. 좌종소리는 집중력을 높이는 주파수대역인 자연의 소리(작은 폭포수 소리대역인 500-4,500Hz)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 편종

▲ 좌종

▲ 성덕대왕신종

▲ 총지종 법구 좌종 사종관

동해권 중심사원, 포항 수인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와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여는 문화, 봉사 사찰

▲ 현재의 수인사

▲ 수인사 야유회

수인사의 역사

수인사는 총지종의 입교개종과 동시에 개설된 포항 선교부가 그 시작이다. 총기 원년 12월 28일 포항시 신광동 669번지, 3층 빌딩의 2층을 빌려 설단불사를 행하고 초대 주교에 록정 대종사와 묘행정 전수가 임명됐다.

원정 대성사가 진각종 총인으로 계시던 시절부터 따르던 교도들은 입교개종과 함께 총지종의 서원당으로 구름같이 몰려든다. 좁은 포항 선교부 서원당은 많은 교도들이 콩나물시루 같이 앉아 진언 염송 정진을 이어갔다.

활화산 같은 교도들의 서원은 새 서원당 건립을 목표로 불사를 이어간다. 종단을 개종한지 삼년 째 되던 해 6월 20일 현재의 수인사 자리에 있던 지상 3층 연면적 346평의 공업 고등학교 건물을 인수하여 불단이설 가지 불사를 봉행한다. 드디어 교도들이 서원하던 사원의 건물을 갖춘 포항 선교부는 총기 4년 10월 20일 수인사 사원명을 봉액하고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 수인사 관불

이후 수인사는 총지종 동해권 중심 사원으로 교화의 선두에 섰다. 지금의 수인사 사원은 많은 스승님들의 강력한 교화의지와 교도들의 뜨거운 불공정진으로 총기 36년(2006년) 8월 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지금은 포항 북부 지역 중심 문화 센타로 다양한 불교문화 강좌와 불사가 이어지는 비로자나 법계궁이 되었다.

신정회

수인사 신정회(회장 이남이, 부회장 오금년, 이경화, 총무 장정순)는 46년 수인사 역사를 일군 중심이다. 종단과 수인사의 모든 불사에 적극 동참하고, 화합된 마음으로 신행의 모범을 보이는 신도조직이다.

신정회는 새해불공부터 창교절까지 종단의 모든 불사에 모든 교도가 동참하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방생법회, 경로잔치 등에 아낌없는 보시와 동참으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한다.

신정회 회장 이남이 보살은 "수인사 신정회 교도들은 화합된 마음으로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교도들의 집안 대소사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합니다"며 신정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정회는 수인사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김장나눔 행사 등에도 적극 참여한다. 나눔이 곧 자비행이라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수인회

자원봉사 신행 단체 「수인회(회장 자비심 보살)」는 이웃에게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심을 실천하는 수행의 장이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무료급식, 김장나눔 수인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매년 한 차례 여는 어르신 경로 잔치는 포항시 북구 중앙동 어르신 약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수인회는 회원들의 보시로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쇠고기 국밥과 후식을 점심 공양으로 제공한다.

「수인회」는 회장 자비심 보살과 박금화 교수(수인사 사찰요리 강사)를 중심으로 10여 명이 이번 봉사 활동에 참가했다.

수인회는 포항시 자원 봉사 마일리지 적립 기관이다. 단순한 봉사 단체를 떠나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봉사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수인회의 활동은 총지종 교화의 바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초창기 수인사

▲ 수인사 법회

▲ 수인사 독거노인 김장나눔 행사

문화센터

수인사는 포항 중심인 육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죽도시장과도 가까운 거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길목에 자리한다. 수인사는 3년 전부터 문화센터를 열고 다양한 강좌를 개설했다.

특히 박금화 교수의 사찰음식 강좌는 매 기수마다 수강생이 넘쳐나고 있다. 스님 밥상 차리기 타이틀로 진행되는 사찰음식 강좌는 포항에서 유일하다.

지난 해 부터는 기체조 강의가 추가 되어 지역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주교 안성 정사는 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화의 시간을 가지고 교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수인사 문화센터 강의를 듣고 수인사 교도가 된 경우가 수인회 회장 박영자 보살이다. 박보살은 매주 자성일과 각종 불사일에 공양간을 책임지는 교도이다.

따뜻한 공양을 서로 나누면서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다.

▲ 문화센터 사찰 요리강좌

▲ 문화센터 기체조 강좌

▲ 수인사 경로잔치에 동참한 교도들

김정악 보살(대승정) 이야기

병마의 고통을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완치

"조금만 그릇된 마음을 먹는다 싶으면 바로 법문이 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을 고쳐먹고 참회하고 불공하며 희사를 합니다."

어린 딸의 병마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

딸이 열 살이 되었을 때 주마담(담이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서 몸이 군데군데 욱신거리고 아픈 병)이라고 불리는 요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몹시 아파하면서도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총지종을 열심히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들은 저는 전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딸아이의 병만 좀 낫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전수님께서는 49일 불공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을 희사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도 자제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당분간 참으며 오직 불공에만 매진해보자고 했습니다. 딸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저는 정말 열심히 49일 불공을 실천했습니다.

새벽, 아침 식사 후, 정진을 하고 대중불사 시간에도 참여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저녁을 먹은 후에도 한 시간 씩 하루에 총 네 번 정진을 했습니다. 멸치도 입에 넣지 않았으며 마음을 다해 불공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의 코 쪽으로 담이 왔습니다. 콧속이 곪을 대로 곪아서 팅팅 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막내아이는 겨우 설 줄 아는 정도의 나이였는데 앉아있는 딸 배꼽 언저리에서 노닥거리다가 일어나면서 머리로 코를 박았습니다. 그 병이 있던 부분을 정통으로 받아쳐가지고 고름이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고름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때의 고린내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로 거짓말처럼 코 부근의 주마담이 흉터 하나 없이 싹 낫고 아물었습니다.

참회만이 진정한 치유

얼마 후 주마담은 딸의 두 다리 쪽으로 왔습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데 딸애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딸 아이를 업고 절에 다녔습니다.

그 때는 기저귀도 잘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서원당 구석에 신문지와 작은 양동이를 놓고 대소변을 보게 해가면서 불공을 했습니다. 지루했을 법도 한데 아이는 한 번도 투덜대지 않고 혼자 놀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수님이 다리가 아픈 거는, 악한 말을 많이 했을 경우에 드러나는 법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총지종을 만나기 전, 시집살이가 너무 어렵고 고달팠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고 모든 일이 고생스러워서 아이들에게 죽으라는 말도 많이 하고, 죽을 약을 구해가지고 함께 먹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 기억이 떠오르자, 나의 과오 때문에 아이가 벌을 받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섭고 미안한 마음이 어찌나 큰 지 밥 한 술도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모진 마음으로 모진 말을 했던 일을 참회하고 반성했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제가 오직 절에만 다니고 있노라니 이웃들은 아이에게 큰일이 날 것 같다며 근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부처님만 믿으면서 하루 네 번 정진을 그치지 않고 참회하고 또 참회했습니다. 불공이란 정말 신기합니다. 그렇게 오 주가 지나자 아이가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 주가 지나자 두 다리 중 하나가 완쾌되었습니다. 그리고 49일 불공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다른 다리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끔히 나은 딸애를 본 이웃 몇 몇이 저를 따라 총지종을 믿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총지종과의 인연이 깊어져 공양주로도 십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그릇된 마음을 먹는다 싶으면 바로 법문이 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을 고쳐먹고 참회하고 불공하며 희사를 합니다.

그래야 일이 곧잘 풀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힘으로 저는 늑막염도 수술 없이 고쳤습니다. 이제 저와 총지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공과 진리의 덕을 너무나 많이 본 까닭입니다. 저처럼 지난날에 과오를 많이 지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모두 총지종 안에서 성도하시길 바랍니다.

박영자 보살 이야기

봉사는 자비의 실천

"식구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해 달라 기도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불공을 하니까 거짓말처럼 마음이 참 편해졌다"

약선요리 와의 인연 총지종의 진언염송과 만나다

약선 요리를 배우며 박금화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수인사에 발을 들였다. 그때 스승님과의 인연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다니고 있다. 스승님께서 회장직을 처음 권유했을 때는 참으로 당혹스러웠다. 자고로 회장이라면 어쩐지 금전적인 여유도 있어야 할 것 같았고, 똑똑해야 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부담스러웠다. 나는 이도저도 아니라 생각했지만, 그저 일 하나는 잘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였다.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급식을 실시한 것도 그 때의 일이다.

남편 병수발 하면서 내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살도 많이 쪘다. 하루는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내과로 가라해서 내과로 가니 당 수치가 꽤나 높았다.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하고, 심할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내가 참 용감하다고 그때 느꼈다. 어차피 생사는 나를 넘어선 초월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자, 별로 무섭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약선요리로 식이요법을 하고, 불공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런지 당 수치도 금방 떨어지고 먹는 약의 가짓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내 삶은 모두가 부처님의 뜻

작년 연말에 건강 검진을 받았다. 의사가 말하길 돌연변이가 보여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때의 내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가 봉사하러 오고 싶어도, 오고 못오는 것은 다 부처님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묻지는 마세요. 나도 결과는 봐야합니다."같이 봉사하는 단체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하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원장님이 병이 날 리가 없다며, 걱정 말라며 다른 봉사자들이 웃음으로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월초 기간에 불공을 하는데 참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내가 남편 병수발에, 시어머니 치매 수발까지 들었으니 아픈 사람을 옆에서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안다. 해서 제발 자식들에게, 식구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게 해 달라 기도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불공을 하니까 거짓말처럼 마음이 참 편해졌다. 또 공양을 지어 올리니 보살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셨다.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벅차오르기도 했다. 그래, 부처님께 밥하고 설거지하다 공양처에서 넘어지면 영광이다,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니 조금 조금해지긴 했다. 결과 나오기 며칠 전에 꿈을 꿨다. 꿈에서 남편이 걱정 말라며 나를 위로해주고 갔다. 이상하게 병원에 들어서는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암 아니야.'사흘 뒤,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다행히도 깨끗했다. 아마 열심히 봉사하고, 공양한 공덕으로 한 중생을 부처님께서 돌봐 주신게 아닐까 싶다.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하물며 그것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일은 더 큰 의미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공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참조: 공양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 웃어른을 모시어 음식 이바지를 하는 것.
둘.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나 죽은 이의 영혼에 음식, 꽃 따위를 바치는 것.
셋. 절에서 음식을 먹는 것.

삶의 지혜, 배우는 즐거움

총지종 포항 수인사 문화센터 봄학기 개강

스님 밥상 차리기(전통 사찰 음식)

- 담당교수 : 박금화(전 포항 선린대학교 호텔조리학과 교수)
- 개강일 : 3월 15일
- 수업일시 및 기간 : 매주 수요일 오후 (8주간)
- 참가대상 : 사찰 음식에 관심 있는 분

기체조

- 담당교수 : 우명숙(기체조 전문 강사)
- 개강일 : 3월 15일
- 수업일시 및 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 (8주간)
- 참가대상 : 기체조와 건강에 관심 있는 분

문의전화 ☎ 포항 수인사 054-247-7613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법 경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문화와 생활』 (3)

룰(Rule)과 밀교의 의궤

정해진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것

룰(Rule)은 구성원간의 약속이며, 규칙과 절차의 준수를 의미한다 룰은 불교에서 계율, 밀교에서는 의궤라 할 수 있다

▶ 운동경기에는 룰(rule)이 있다. 룰(Rule)은 규칙을 의미하는 영어권의 말이다. 구성원들간의 약속이자 규칙이다. 여기에는 절차도 포함된다. 그것은 국가와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어느 단체나 조직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마땅히 지켜야 함은 기본이다.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간의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룰(Rule)을 지키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자 문제의 본질이다. 즉 국가와 사회, 기업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룰과 시스템에 따라 운영이 될 때, 사회와 기업은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룰과 시스템이 무너지면 정상은 기대할 수 없고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의 원인은 룰(Rule)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

▶ 이 세상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만 생각한다면 나쁜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며, 잘못되었다고 아예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상대성과 양면성이 존재한다. 좋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쁜 것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보면 모든 것은 이해되고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이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린다. 설사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애시당초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 되어 버린다. 행여 문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쉽게 덮어지고 만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흔히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로 표현된다. 네가 하면 당연히 불륜이다.

'아무런 잘못도 안했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한다면, 그 항변에 더 이상 할 말도, 문제 삼을 것도 없어진다. 처음부터 이미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반성하고, 문제의 본질을 한 번이라도 되짚고 간다면, 제대로 눈에 들어오고 수긍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고집과 독선,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양극단을 피하라!" 고집을 버리고 서로 경청하고 받아들인다면 막혔던 문제도 쉽게 풀려질 것이다.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어린 애들의 놀이에도 룰은 있다. 그러나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미 없는 놀이가 될 뿐만 아니라 놀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이오 존재 가치마저 잃고 만다. 룰이 지켜지지 않는 놀이는 더 이상 놀이가 아니다. 놀이도 이어질 수 없다. 당연히 판은 깨지고 만다.

이것을 사회나 기업에 대입시켜보자. 룰이 지켜지지 않는 조직이 과연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까. 당연히 올바르지 않은 비선(非線)이 조직을 장악하고, 드러나지 않은 비선(秘線)은 전체 조직을 통제하여 비정상이 정상을 우선하고, 지배하는 일이 벌어질 것은 분명하다. 급기야 사회는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게 된다. 모든 일의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뿐더러 일의 결정도 바르지 않음은 물론이다. 또한 그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그리고 결국 사회와 기업의 조직은 생명력을 잃고 와해되고 만다.

▶ 사회는 정상적인 룰과 시스템을 통해 운영돼야 할 것이다. 반드시 논의해야 할 것은 마땅히 논의해야 하고, 검증이 필요한 것은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때는 제대로 모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면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과감하게 거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또 지킬 수 있어야 국가나 기업이 산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지키기 위해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 인내해야만 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상식을 지키면 법은 바로 서고, 원칙과 기준은 생명력을 얻는다. 그런 국가와 조직이 영구(永久)하다.

불교의 룰 (Rule)인 계율은 승가의 안녕을 위한 규칙이자 정법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 승가는 계율과 갈마(羯磨)라는 절차를 통해 운영

▶ 부처님은 승가의 안녕을 위하고 정법(正法)이 영구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승가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이 곧 계율의 제정이다. 승가는 계율을 지킴으로써 승가의 안정을 가져 온다고 믿고 있다. 율장에 따르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주어진다. 그리고 벌칙에 앞서 반드시 갈마(羯磨)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징계와 사면에는 모두 갈마의 회의 절차를 거친다. 참으로 민주적인 승가의 운영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 다툼과 갈등까지 해소하는 쟁의법(爭議法)까지 만들어진 것은 승가의 운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승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일조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의 소송법(訴訟法)과도 같은 것이다. 시비를 가리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꼭 닮았다.

▶ 국가나 기업, 모든 조직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편하고 귀찮다고 하여 사적인 라인을 찾기 시작한다면, 공식라인은 결국 동력을 잃고 조직은 퇴보하고 만다. 사적인 라인으로 인하여 실무책임자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급기야 모두가 비정상(非正常)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사회나 기업의 운영 뿐만 아니라 어린 애들의 놀이, 조직, 승가 등에서도 모두 룰(Rule)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나의 사이에도 룰은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룰은 예의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 사이에 룰이 없어지면 서로간의 신뢰는 깨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룰을 지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와 안정, 화합은 깨지고 만다. 국가나 사회가 정해진 기준과 원칙, 시스템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교에서 룰(Rule)은 모든 수법(修法)과 작법(作法)의 규칙과 절차이다 이를 의궤(儀軌)라 한다

▶ 룰을 지켜야 함은 종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의 룰은 바로 계율이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룰(Rule)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 계율 뿐만 아니라 룰은 수행 규칙과 수행법까지도 포함된다. 밀교에서 이러한 룰을 '의궤(儀軌)'라고 한다. 각종 수법(修法)과 작법(作法)의 규칙과 기준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의궤라 총칭하고 있다. 따라서 의궤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식도 의궤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종단의 의궤를 무시하는 것은 수행법을 버리는 것이며, 무엇보다 종단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염송법의 3.7의궤법이나 7.21의궤법 등은 바로 종단 수행법의 의궤에 해당한다.

▶ 국가와 사회에서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밀교 의궤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룰을 지키지 않으면 원칙이 없어지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스템도 결국 무너진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므로 모두가 룰을 지켜야 한다. 룰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절차를 지키는 것'이 곧 룰(Rule)이다. 이 '절차'에는 상호존중과 협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절차'는 정치의 기본이자 국정운영의 근본이며, 상호간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된다. 의궤라는 룰을 지키지 않으면 밀교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은 어그러지고 만다.

르노삼성 SM6

자동차 전문기자가 뽑은 '2017 올해의 차' 수상

SM6, '올해의 안전한 차' 최고점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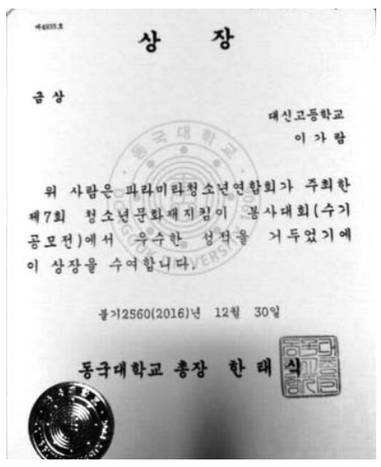
지금 시승 신청하세요

SM3 SM5 SM6 SM7 QM3 QM6

김지미 팀장(실보사 교도) 010-4812-1258 경북 포항시 복구 새천년대로 494 TEL. 054-283-8888

관성사 이봉재 각자 아들 이가람 군

문화재지킴이 동국대학교 총장상 수상


상 장

금 상

대신고등학교
이 가 람

위 사람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주최한 제7회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봉사대회(수기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불기2560(2016)년 12월 30일

동국대학교 총장 한 태 식

총지종 관성사 이봉재 각자와 김인상 보살의 아들인 이가람 군(서울 대신고 2년, 파라미타 전국 연합회 회장)이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주최한 제7회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봉사대회 수기 공모전에서 금상인 동국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가람 군은 "지난 한 해 동안 파라미타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체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수기로 적어서 이번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문화재가 가진 의미를 공부하는 활동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앞장 서 겠습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군의 어머니인 김인상 보살은 "온순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학교생활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자기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대견스러운 아들입니다"며 이군의 성품을 얘기한다. 이군이 회장으로 활동하는 파라미타 전국연합회는 부산 범어사 주지를 지낸 정여 스님이 총재로 1996년 설립된 청소년 단체이다. 전국 12개 지부, 21개 지회와 500여개의 분회로 조직된 회원 3만명의 단체이다. 이군은 전국회장으로 문화재애호, 국제교류, 연수 및 연구 활동에 청소년 회원 대표의 자격으로 참가한다.

화음사 강순란 보살 차남 이선민군

제69회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

▲ 이선민군 학위 수여식

화음사 신정회장 강순란 보살의 차남 이선민군이 제69회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였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을 마친 이선민군은 차분한 성격과 공부에 대한 열정이 강한 청년으로 학창 시절 모범생으로 주변의 칭찬을 받았다.

이군의 어머니인 강순란 보살은 총지종에 입교하여 30여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공식불공에 동참하며 용맹정진 했다. 아버지 이재호 각자는 "선민이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보살님의 용맹정진과 부처님가지 덕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족 모두 부처님 깊은 은혜 갚고 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이군은 3월 2일부터 서울 보훈 병원에서 중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치과의사로서 삶을 시작한다.

축구와 걸그룹을 좋아하는 소년 세계 최고의 로봇 공학자를 꿈꾸다

종립 동해중 제47회 수석 졸업 서진혁 군

▲ 서진혁군

"장애우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인체를 대신하는 로봇을 만드는 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종립 동해중학교 제47회 수석 졸업생 서진혁 군의 당찬 포부다.

2월 13일 동해중학교 교장실에서 만난 서진혁군은 사춘기를 지나 청년으로 세상을 맞을 준비가 된 학생이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말했다. 총지종 종립 학교의 불교 인재 양성의 결실을 맺은 서진혁 군과의 인터뷰를 요약하여 전한다.

먼저 수석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진학하는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 하나요?

▶ 감사합니다. 고등학교는 부산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평소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하고, 방과 후에는 주로 집에서 공부합니다. 주말에 학원에 갑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축구도하고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학원은 어떤 과목을 다니며, 평소 공부하는 방법은?

▶ 학원은 제가 관심 있는 과학과 수학만 다니고, 평소 학교수업에 집중하면 시험은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됐나요?

▶ 어릴 때 부모님이 과학에 관한 책을 많이 사주셨습니다. 과학의 여러 가지 현상을 쉽게 설명한 책 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과학적인 현상에 대한 지은이의 생각과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비교해보기도 했습니다.

교과목 이외에 예체능에도 관심이 있나요?

▶ 제가 교과목 이외에도 축구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 합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피아노 연주도 자주 합니다. 학예회 때는 친구들과 트와이스의 티티를 부르면서 댄스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노래 루키와 맴버 아이린을 좋아합니다. 지금은 여러 분야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봉사 활동 경험은 있는가요?

▶ 예. 주로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원이나 장애우들이 있는 시설에 봉사를 다녔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우들이 신체가 불편해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을 위한 로봇이나 수트형 로봇에 대한 꿈이 현실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것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 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여행은 자주가나요. 기억에 남는 여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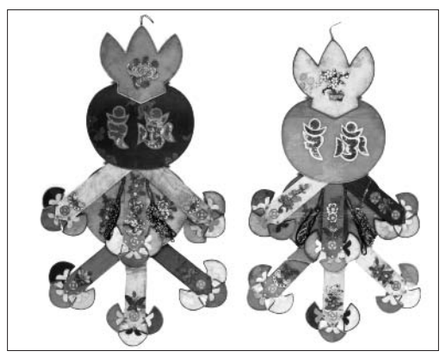
▶ 예. 부모님과 함께 가끔 여행을 다닙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친척들과 속초 바닷가에 놀러갔습니다. 그때 사촌들과 뛰어 다니며 레일바이크도 타고, 여기 저기 유적지를 갔던 그때의 감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후에 대학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저는 먼저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물리학을 바탕으로 제 꿈인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 카이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중=김종열 기자

불교천태중앙博 '무량생명과 사리장엄' 특별전

3월 26일까지, 한국·중국·티베트 유물 60여점


▲ 천태박물관사리장엄

불교천태중앙박물관(관장 장호 스님)은 1월 26일 개막한 '무량생명(복장물)과 사리장엄' 특별전을 3월 26일까지 열린다.

전시유물은 복장물과 사리장엄구로 나눠지며 총 60여 점이 전시된다. 복장물로는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아미타삼존 다라니와 아자범자원상 태장계만다라, 조선시대 대불정수능엄신주 다라니 등 복장물과 복장물을 넣는 후령통 일괄, 황초폭자(黃綃幅子, 후령통을 싸는 보자기), 각종 다라니류, 다라니 주머니 일괄 등 중국, 인도 간다라, 티베트 금동아촉여래좌상 및 복장물 일괄(17~19세기) 등이 선보인다.

사리장엄구로는 통일신라시대 금동 사리기, 유리제 사리병, 수정제 사리기, 고려시대 동제 사리기 일괄과 청동 탑형 사리기, 은제 사리병, 은제 거북형 사리기, 조선시대 석제 사리호, 중국 옥제 사리병, 간다라 출토 석제 사리함 일괄과 청동 사리병, 티베트 청동사리병, 스리랑카 금동 탑형 사리기 등도 전시된다.

박물관장 장호 스님은 "탑과 사리신앙, 불복장 관련 유물에는 지역의 풍토와 시대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면서 "불교신앙을 담은 유물과 유산은 모두 삼보의 정신이 깃든 성보이며, 살아 숨쉬는 부처님의 법문이다. 그 예술성과 유산적 가치가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유물에 담긴 신앙의 정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We Can Make a World Without Discrimination)

불기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발표

▲ 불기 2560년 연등 축제

불기 2561(201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오는 5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표어로 "차별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을 선정 발표했다.

금년부터는 부처님오신날의 슬로건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년도별 봉축표어는 이와는 별도로 매년 시의적절한 표어로 선정 발표하게 됐다. 올해 봉축표어는 금년의 다양한 국내외 환경변화를 앞두고 우리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선정됐다.

이번 봉축표어는 우리가 모두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하나같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모든 인간은 성별, 나이, 사상, 종교, 빈부, 취향과 같은 모든 차별로 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대자유의 선언이기도 하다.

무릇 모든 갈등은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이 세상의 주인공인 내가 지혜와 자비심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 Art bridge

아트브릿지는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연극, 뮤지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역사탐험연극 - 박물관은 살아있다

고구려-고분탐험대
백제-예술탐험대
신라-서라벌탐험대
선사시대

역사인물탐험연극

소년 이순신, 무장을 꿈꾸다
세종, 인재를 뽑다
정약용과 함께 하는 실학여행
천상시계 - 천재 과학자 장영실 이야기
쪽마루 아틀리에 - 국민화가 박수근 이야기

아시아문화탐험연극

연극과 놀이로 배우는 우리 이웃 아시아!
-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19 ☎02-741-3581~2 www.artbridge.or.kr

유물로 보는 밀교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19호

명 칭 : 양양서림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襄陽西林寺址石造毘盧舍那佛坐像)
시 대 : 미상
소 재 지 : 강원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115 (서림리)

▲양양서림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현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교정에 3층석탑과 함께 보존되어 있는 불상으로, 1965년에 가까운 논에서 발견되어 옮겨 놓은 것이다.

불상의 머리는 없어졌고 몸도 손상이 많은 상태이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감싼 형태로 보아 비로자나불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각형의 대좌(臺座)는 결실된 부분이 있지만 조각 솜씨가 매우 우수하다. 밑받침돌 위에 4매의 석재로 구성된 하대석을 올려 놓았는데, 각 면마다 1구씩의 사자를 돋을새김하였다. 8각 중대석은 각 모서리에 기둥모양을 새기고 그 사이에 1구의 향로와 7구의 보살상을 배치하였다.

자료제공=문화재청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33. 석장수(錫杖手) 진언

옴 날지 날지 날타바지날제 나야바니 훔 바탁

만약 자비로써 일체 중생을 덮어 주려면 이 진언을 외우라

그때 그시절

총기2년(1973년) 3월19일
대구선교부를 개설
대구시 남산동에 대구선교부를 개설.
주교에 환당(歡堂)정사

총기4년(1975년) 3월28일
총본산 건설 대지매입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20번지의 2호 총본산 부지로 매입

총기5년(1976년) 3월16일
유가서원당 개설
부산시 남구 광안동에 유가서원당을 개설
주교 일념화 전수

총기7년(1978년) 3월30일
일광서원당(日光誓願堂)을 개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개설
주교 정원각 전수

내용참조: "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편 432p

TJ 태진 E&C

환경 친화적 시공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

건축시공계획부터 준공하여 입주하는 그날까지
태진 E&C가 책임지고 시공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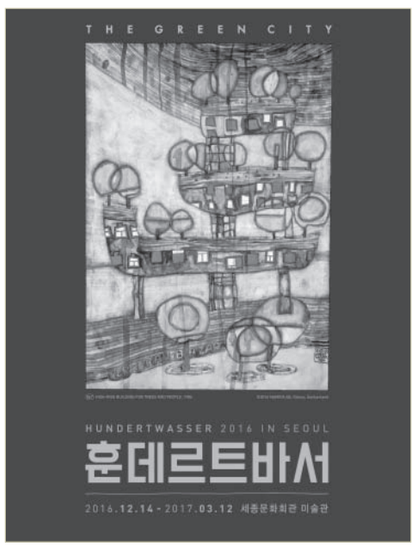
• 인테리어 • 건설공사 • 냉 · 난방 설비 • 소방기계 설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27, 507-501 TEL) 070-8836-4281 대표 손 태 진 010 - 5207 - 0659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새로운 세상의 시작"

훈데르트바서의 그린시티 展



▲ 포스터

독특한 예술세계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다리가 되고자 했던 아티스트, 훈데르트바서의 작품전이 세계 최대 규모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3월 12일까지 열린다. '그린시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100점이 넘는 회화 작품, 건축 모형 작품 6점, 태피스트리 5점, 환경포스터, 건축디자인 스케치 등 총 140여 점을 선보인다.

일생을 환경보호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바친 훈데르트바서는 "혼자 꿈을 꾸면 꿈에 그치지만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자연과 인간이 둘이 아닌 불이의 세상, 사람이 자연으로 회귀하는 윤회의 철학을 작품으로 담아냈다.

'타오르는 물' '사람들과 나무를 위한 고층 건물' 등 회화 100여 점,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등 건축 모형 작품 6점, 수공으로 제작된 태피스트리 5점, 환경포스터, 건축디자인 스케치등 총 140여 점과 다큐멘터리 사진, 성명서, 에세이, 시 등 110여 점의 자료가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훈데르트바서는 평생 일관되게 자연과의 공존을 주장했다. 두두물물이 모두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걸 강조했던 부처님처럼, 훈데르트바서는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세상을 불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작품 속에서 직선보다는 곡선을 주로 사용했고 건축물 안에도 꼭 식물의 자리를 만들어줬다.

"인간은 자연에 들른 손님입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라고 말했던 훈데르트바서. 그는 '자연과의 평화 조약'을 발표하고 '생태 장례식'을 여는 등 자연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윤회를 인정했다. 2000년 2월 세상을 뜬 그는 인간으로서의 지구 거주는 마감하고 자연으로 순환하여 튤립나무의 형태로 지구에 거주 중이다.

훈데르트바서는 기능과 실용만을 중시하는 현대의 건축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병들게 하고 자연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메마른 건축물에 곡선과 다채로운 색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그의 건축물들은 그에게 '건축 치료사'라는 별칭을 얻게 한 일등 공신이다.

▲ 식물정수 시스템 실물

보는 방향에 따라 건물이면서 산이기도 한 리조트를 디자인한 건 자연은 직선이 아니라는 평소의 신념을 고스란히 담아 건물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어버린다. 건축 재료에 있어서도 자연과 가까운 친환경 재료인 흙, 벽돌, 화강암, 목탄 등을 주로 사용했다.

훈데르트바서는 "진정한 건축물이란 사람들이 그 공간 속에 이사 온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입주자와 건축물 사이의 밀접한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던 그는 실제로 최대한 자연식을 했고 당시 거주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만을 먹었다. 쐐기풀, 민들레, 야생 부추, 야생 마늘, 야생 양파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고 간장으로 그 맛을 풍부하게 했다는 훈데르트바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생활하고 작품을 만들어낸 그의 삶은 수행자를 닮아 있다.

얼마 남지 않은 훈데르트바서의 그린시티展, 놓치지 말자.

공식 홈페이지 : www.hundertwasser.co.kr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stamsports

전시에서 만난 작품들

1991년 작. 타오르는 물 (Water Fire)

강렬한 색감으로 눈길을 끄는 작품. 1980년대 초를 기점으로 훈데르트바서는 50개에 이르는 건축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상대적으로 회화 작품을 위한 시간 할애는 적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천재성이 회화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91년에 탄생한 불타는 물(Water Fire)는 훈데르트바서적인 암시와 표현으로 가득한 '시각적 시'로 불리는 작품이다.

훈데르트바서는 이 작품에 대해 남긴 노트에서 타고 있는 물을 불로 끄겠다고 했다. 물과 불의 경계와 역할을 뒤집는 사고가 작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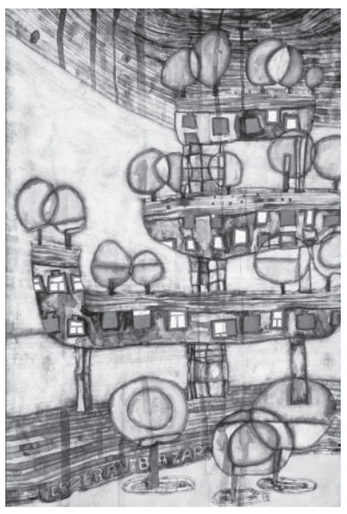
1984년작. 사람들과 나무를 위한 고층 건물(High-Rise Building for Trees and people)

훈데르트바서는 천재 아티스트일 뿐 아니라 열정적인 환경 운동가였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란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달했고, 건축물에는 실제로 식물들에게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이미지를 실제로 구체화했다.

현재는 보편화되어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옥상 정원은 훈데르트바서가 환경 운동을 시작한 시기에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훈데르트바서는 이 개념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운 환경운동가이다.

그는 옥상 정원의 수준을 넘어 위에서 보면 자연과 건축물의 경계가 불분명할 정도로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건축물을 꿈꿨다. 이 작품은 그러한 그의 소망이 주제로 드러난 작품으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강지연 구성작가



▲1984년작. 사람들과 나무를 위한 고층 건물

▲ 1991년 작. 타오르는 물

▲정원을 훔쳐보는 자들에 대하여

한빛문학 신인상 수상작
'꽃보다 아름다운 딸의 성품'

관성사 교도 박영자 보살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요란하게 울린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딸이다. 이번 여행을 다른 유럽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취소하고 가까운 북경으로 가기로 했단다. 왜? 딸은 아직 젊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가서 쉬고 올 계획이란다.

시어머님은 6남매를 기르면서 종부로 시집살이를 하느라 20년 전에 제주도에 가신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었단다.

그것도 놀러 가신 것이 아니고 자녀 중에 누가 제주도에 있어서 가신 거라는 말씀에, 딸은 80이 넘고 몸이 불편하신 시부모님은 언제 또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련다는 이야기다.

"엄마 죄송해요. 엄마는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염려 말고 잘 다녀 오거라. 나는 안 간데 없이 많이 다녔으니 염려마라."

"그런데 시어머님 허리가 굽어서 어찌 다니려고?"

걸음도 못 걷고 시아버지는 치매기도 있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둘째 시누이가 걱정해요. 환자분들 모시고 어딜 가느냐고. 형님! 제가 이번 개인전에서 그림이 팔린 것으로 외국 여행 한번 시켜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가요. 잘 다녀올게요. 하지만 휠체어를 밀고 이 뜨거운데 다닐 것이 걱정이란다.

2016년 8월 8일 공항에서 딸은 또 전화를 해 준다. "엄마!" 잘 다녀올게요! 엄마한테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즐겁다.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오히려 내가 고맙구나. 한눈 팔지 말고 옆에서 잘 모시고 다녀오너라."

내심 걱정이 된다. 좋은 생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해외 구경 시켜드리고 싶어서 효심을 발휘한 것이 시누이 말대로 조금이라도 변고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앞선다.

딸은 시부모님과 공항에서 휠체어로 입국하는 사진을 보내왔다. 사위가 있지만 3박 4일을 어찌 다니려나... 한숨만 나온다. 무사히 다녀 오시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해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축생 김수진 시부모님 모시고 건강한 몸으로 즐거운 여행하고 무사히 귀국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다는 전화가 올 때까지 마음을 졸이고 온통 여행하는 모습만 아른거린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시댁인 수원으로 가는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다. "건강은 어떠시니? 음식은 잘 드셨는지?"

"엄마! 걱정 마셔요. 두 분 다 집에만 계실 때보다 발걸음도 가볍게 다니시고 중국 음식도 잘 드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안심이 되고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꽃보다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우리 딸! 고맙다. 시집 남매들도 우리가 못 해준 것을 해주어 고맙다고 치하를 한단다. 엄마는 아프니까 여행은 못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면서 고맙다는 말이 그치지를 않는단다.

태교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보다.

막내딸을 가질 때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두고 훌륭한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 하는데, 생각하고 열심히 태교를 한 덕일까?

바른 생각과 행동 하나에도 신경을 써서 좁은 길에도 가지 않고 굽은 길도 가지를 않으며 늘 공부를 하였다. 마루 난간에도 걸터 앉지를 않으며 자세는 항상 반듯하게 몸을 청결하게 하였다.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태교를 하니 이 딸이 그리도 순하고 예쁘게 자라고 대학교 학생들을 교육 시키며 시집 가서도 시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이 예쁘다.

나에게 잘하는 것보다 시부모님 잘 모시고 귀염받는 것도 더 좋은 마음이다. 이제는 딸(손녀)이든 아들(손자)이든 한 명만 낳아주면 좋겠다. 임신이야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 나이도 많은데 그래도 기다려진다. 이왕이면 손자나 빨리 보게 해주렴! 엄마의 소망이다. 하하하!

덕광정사와 함께 四君子 배우기①

梅蘭菊竹

四君子(사군자)

많은 꽃과 식물 중에서 특별히 梅(매), 蘭(난), 菊(국), 竹(죽)을 선택하여 덕(德)과 학식이 높은 사람의 인품에 비유해서 사군자라 하였다.

1. 梅(매) : 봄을 상징한다.

이른 봄 눈이 채 녹기전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

봄의 늦추위 속에 맑은 향기와 아울러 눈 속에서 홀로 핀 매화의 고고한 자태는 선비의 곧은 지조, 절개에 비유한다.

2. 蘭(난) : 여름을 상징한다.

깊은 산중에서 그윽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린다.

3. 菊(국) : 가을을 상징한다.

봄, 여름을 지나 늦가을에 서리 맞으며 홀로 피어난다.

절개를 지키며 속세를 떠나 고고하게 살아가는 은자를 비유한다.

4. 竹(죽) : 겨울을 상징한다.

모든 식물이 잎을 떨어뜨린 추운 겨울에도 푸르고 싱싱한 잎을 간직하고 있다.

사철 푸르고 곧게 자라는 성질로 인한 절개와 굽히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군자의 기상에 비유한다.

<다음호에 계속>

※ 덕광정사는 울산 실보사 주교로 울산미술대전한국화 부문 수상한 화가이다.

음악과 함께하는 인생의 즐거움~

경북 최대 규모 종합 악기 전문점

"삼익악기 포항점"

▲ 삼익악기 포항점 대표 손원락

음악을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 어려운 가정형편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 공장에 취직을 했다. 그러나 청년은 적응하기 어려웠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음악과 함께하는 직장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피아노 가게에 취직했다. 음악을 연주하는 멋진 일은 아니지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피아노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피아노를 옮기고 설치하는 고된 일의 연속이었지만 악기와 함께해서 즐거웠다. 함께 일하던 조율사로부터 피아노 조율을 하나씩 익힌 청년은 지금 국가공인 1급 피아노 조율사가 되었다.

이 청년이 바로 삼익악기 포항점 대표 손원락 사장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음악은 힘들고 외로운 순간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며 환한 웃음으로 반기는 손원락 사장은 포항 지역 최고의 피아노 전문가다. "1987년 지금의 수인사 자리에 있던 건물에 피아노 대리점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길 건너로 옮겨 운영하지만 매일 총지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며 말한다. 수인사 교도인 손 사장은 포항 지역 최대의 매장을 보유한 종합 악기점을 운영 중이다.

취급하는 품목도 다양하다. 피아노에서부터 드럼까지 악기는 전부 있다. 기타, 우크렐레, 앰프기타, 베이스, 드럼, 바이올린, 전자피아노 등 연주자가 원하는 악기는 매장에 없더라도 손사장이 직접 발로 뛰어 고객에게 전한다. 에프터 서비스는 기본이다. 악기가 연주하다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고객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작은 결함까지도 찾아 악기의 재모습을 찾아 준다.

요즘은 전자 악기들이 많이 보급 되었지만,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손사장의 손에 거치면 아무리 망가져도 본 모습을 되찾는다.

손원락 사장은 매장을 직접 찾는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터넷 시대에 맞춰 쇼핑몰 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www.phsamick.co.kr로 접속하면 원하는 모든 악기를 집에서 구매할 수 있다. 중고악기에서 신제품에 이르기까지 1,000여종의 악기가 판매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특히 학생들의 교육용 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주문과 동시에 발송이 이루어져 다음날이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악기를 가질 수 있다.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한다.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삶의 여유와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악기 하나 정도는 배워 보면 어떨까. 악기는 손을 쓰고, 박자를 맞춰 연주하기 때문에 특히 중장년층의 정신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은 효과를 준다. 어린이들에게는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밑거름이 된다. 지금 당장 손원락 사장에게 연락해 음악으로 가꿔 나가는 새로운 인생을 열어보자.

문의 (054) 248-2044 / 010-3505-2279
인터넷 쇼핑몰 삼익악기 | www.phsamick.co.kr

삼익악기 포항점
경북 최대 규모 종합 악기 전문점

인터넷 쇼핑몰 삼익악기 www.phsamick.co.kr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 64 문의 (054) 248-2044 / 010-3505-2279

국민건강 All For Health

건강을 생각하고 활기찬 생활을 원하시면 '국민건강'

헬스케어 전문가 고 성 욱 대표 Tel. 054-242-4791 / 010-6501-3870

헬스케어에 관한 전 제품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운동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취급품목 ■

· 안마의자
· 헬스용품
· 재활용품
· 병원용품